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지수 및 순위 측정

제주평화연구원 정승철 연구실장
임해용 연구위원
유기은 박사후연구원

요약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서서히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에 하락하였던 각종 경제지표들은 2021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1년에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반등·회복하였는지, 어떤 국가들이 여전히 2020년에 하락한 경제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 및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순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국가별 경제성과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투자, 실업률, 정부부채, 경상수지, 물가지수 등 6가지 항목을, 경제복원력지수는 GDP 변화율, 투자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정부부채 변화율, 경상수지변화율, 인플레이션 등 6가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방식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경제성과지수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을 측정한다면 경제복원력지수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수준을 기점으로 한해동안 그 국가의 거시경제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즉, 그 국가의 역량 수준에서 봤을 때 전년대비 얼마나 국가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회복, 상승하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성과 수준 보다는 오로지 상승(혹은 하락)율 수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최근 널리 주목받고 있는 '회복탄력성'이라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측정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지수를 도출하고 국가의 순위를 측정하는 연구는 Foreign Policy, Our World in Data, Bloomberg 등 세계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하는 연구결과는 연도별 각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그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경제성과와 경제복원력에 집중, 주목한다는 점에서 타기관들이 발표한 지수 및 순위와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전체 80개국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2019년 3개년 평균 경제성과지수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대만, 노르웨이, 독일, 홍콩, 스웨덴, 한국 등 북·서유럽과 아시아의 중·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팬데믹을 겪는 와중에 경제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일랜드, 독일, 홍콩, 스웨덴이 우수한 경제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경제성과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3개년 평균이 10위, 2020년 13위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1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문 〈표 2〉 참고)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성과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경제복원력지수의 경우 전체 80개국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전 3개년 평균은 홍콩, 니카라과, 에콰도르, 이란, 터키, 알제리, 스리랑카, 핀란드,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코로나19 의 확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의 경제복원력지수 순위는 대만, 중국, 그리스, 스위스, 이스라엘, 프랑스, 니카라과, 한국, 알바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백신의 개발·보급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2021년 경제복원력지수 순위는 대만, 그리스, 중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덴마크,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예측되었다.

○ 한국의 경제복원력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22위, 2020년 9위를 기록하였으며 2020-2021년에는 10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문 〈표 3〉 참고)

한국은 경제성과지수와 경제복원력 순위가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과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매우 우수한 편을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경제복원력 수준도 매우 높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가 필연적으로 경제성과로 이어진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없었다. 즉, 확진자 수로 측정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부진을 야기한다고는 볼 수는 없었다. (본문 〈그림 1〉~〈그림 4〉 참고)

○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고 경제적 부진을 보인 국가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도 존재한다. 반대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국가들 가운데에도 경제성과가 개선된 국가와 악화된 국가가 모두 존재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평균이상의 인구백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 가운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은 타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코로나19 통제에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이 팬데믹 위기에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국가의 통제에 잘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회복탄력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은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 및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계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각국의 복원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서론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으로 인해 개인, 기업, 국가 등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중단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산업(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걸쳐 생산성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상황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혹은 장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치·사회적 갈등의 조짐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정치·경제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도 보여왔다.

하지만 2021년들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서서히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에 하락하였던 각종 경제지표들은 2021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1년에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반등·회복하였는지, 어떤 국가들이 여전히 2020년에 하락한 경제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과 및 복원력지수 순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제복원력지수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역경을 극복함과 동시에 빠르게 반등을 개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최근 들어 널리 주목받고 있는 '회복탄력성'이라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측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지수를 도출하고 국가의 순위를 측정하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oreign Policy는 세계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각종 조치(코로나19 검사율, 인구 백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이동제한 정책의 강도, 집합제한 정책의 강도, 긴급경기부양책의 규모, 재난지원금의 규모, 코로나19 관련 언론자유도 등)를 종합하여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수(COVID-19 Global Response Index)를 발표하였다.[1] Our World in Data는 또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학교 및 직장 폐쇄 강도, 집합 제한 조치의 강도, 국내외 이동제한 조치의 강도 등)를 종합하여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엄격성 지수(COVID-19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를 발표하였다.[2] Bloomberg 또한 코로나19 관련 통계(지난달 인구 십만명 당 코로나19

[1] The COVID-19 Global Response Index, *Foreign Policy*. https://globalresponseindex.foreignpolicy.com/.

확진자 수,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 코로나19 확산 시작 이래 인구 백만명 당 사망자 수), 대응 정책 (이동제한령의 강도, 효과적인 의료보험제도 구비 수준), 2021년 GDP 성장률 예측치, 그리고 유엔 인간개발지수(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Index) 현황 등을 바탕으로 국가별 코로나19 회복력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을 발표하였다.[3)]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타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수들은 주로 국가별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관련 통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정책의 강도를 바탕으로 그 국가가 코로나19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그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제주평화연구원은 연도별 각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그 변화 정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각 국가의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와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순위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의 경제성과와 경제복원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지수와 순위는 타기관들이 발표한 지수들과 차별화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MF의 가장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위 지수들은 2021년 예측치 뿐 아니라 2026년 경제성과지수의 예측치 또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정치체제(민주주의/권위주의)와 경제성과/경제복원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함께 알아볼 것이다.

2) COVID-19: Stringency Index,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covid-stringency-index.

3) The Covid Resilience Ranking,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raphics/covid-resilience-ranking/.

2. 코로나19 확산 전후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와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생성

코로나19 환산 전후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회복탄력적이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성과지수(EPI)와 경제복원력지수(ERI)는 다음 지표들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표 1〉 참조)

〈표1〉 경제성과지수(EPI)와 경제복원력지수(ERI) 구축에 활용된 지표 목록

	지표 (Indicator)[4]	단위 (Unit)
1	1인당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GDPPC)	US $
2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 변화율 (Annual Change, GDP)	Percentage (%)
3	구매력 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총생산 (Purchasing Power Parity, GDP)	US$ Billions
4	국내총생산 대비 총투자유입율 (Total Investment, % of GDP)	Percentage (%)
5	실업률 (Unemployment Rate)	Percentage (%)
6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총부채량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 of GDP)	Percentage (%)
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 of GDP)	Percentage (%)
8	물가상승률(Inflation)	Percentage (%)
9	총 인구 (Population)- 백만이상 국가 대상	Millions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21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데이터에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각 국가의 연도별 경제지표(2021년부터는 예측치)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표1〉에 나타난 지표들을 바탕으로 국가별 2017-2019년 평균, 2020년, 2021년 경제성과지수(〈표 2 참조〉),[5] 그리고 국가별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2017-2019), 코로나19 이전 3년 대비 2020년, 코로나19 이전 3년 대비 2021년 경제복원력지수(〈표 3〉 참조)를 구축하였다.[6]

---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Edition),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

5) 코로나19 확산 이전 국가별 경제성과는 2017, 2018, 2019 총 3개년 경제성과지수의 평균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해인 2019년만의 경제성과 보다 이전 3년치 평균을 보는 것이 각 국가의 코로나19 이전 경제성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 3년치 경제성과지수 평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별 경제성과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할 것이다.

6) 경제성과지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국가별 경제복원력도 2016년 대비 2017년, 2017년 대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총 3개년 복원력의 평균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 TOPSIS 방식 소개

○ 이상적 해결책에 대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선호순서선정기술(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이하 TOPSIS)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TOPSIS는 여러 대안 중에 랭킹을 부여할 때 각 대안의 여러 공통항목을 표준화하여 최상의 값과 최하의 값과의 거리를 합함으로써 한 대안이 전체 대안 사이에서 갖는 값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대안들 사이의 랭킹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TOPSIS는 다기준 의사 결정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에 관한 많은 해결책 중의 하나로서 동일 변수 내의 이상적인 대안에 대해 유사선호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지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TOPSI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TOPSIS는 집단 내부의 종합적 평가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되는데, 원자료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그 결과치가 평가방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 TOPSIS는 데이터 분포나 데이터 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지수 계산이 간단하다.
- TOPSIS의 핵심 메커니즘은 다른 차원으로 구성된 원자료를 표준화시켜서 원자료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변환하는데 있다.

- TOPSIS 방법론[7)]

TOPSIS를 통해 랭킹을 부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파악해보도록 하자. TOPSIS를 통해 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다섯단계로 구성이 된다. 먼저 주어진 원자료는 행렬(matrix) 로 이해되며, 행렬 요소의 구성은 행에는 각 대안(i)이, 열에는 각 대안에 대한 평가항목(j)이 정렬되어 있다.

1. 행의 개수가 n이고 열의 개수가 m인 행렬 안의 요소인 원자료(X_{ij})를 같은 항목(j)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0과 1 사이에서 표준화한다.

$$r_{ij} = \frac{X_{ij}}{\sqrt{\sum_{i=1}^{n} {X_{ij}}^2}}$$

2. 표준화된 지수(r_{ij})에 각 항목(j)에 해당하는 가중치(W_j)를 곱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표준화 지수(R_{ij})를 만든다.

$$R_{ij} = r_{ij} \times W_j$$

7) Hwang, C.L.; Yoon, K. (1981).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Springer-Verlag.

3. 개별 항목의 최고치 (R^+)와 최하치(R^-)를 선정한다. 최고치와 최하치는 개별 변수마다 경제적 선호에 따라 그 방향이 다르다.

$$R^+ = (R_1{}^+, R_2{}^+, ..., R_m{}^+) = (max\{R_{11}, R_{21}, ..., R_{n1}\}, max\{R_{12}, R_{22}, ..., R_{n2}\}, ..., max\{R_{1m}, R_{2m}, ..., R_{nm}\})$$

$$R^- = (R_1{}^-, R_2{}^-, ..., R_m{}^-) = (min\{R_{11}, R_{21}, ..., R_{n1}\}, min\{R_{12}, R_{22}, ..., R_{n2}\}, ..., min\{R_{1m}, R_{2m}, ..., R_{nm}\})$$

4. 개별 지수(R_{ij})와 개별 지수가 속한 항목의 최고치(Ideal Value, R^+)와 최하치(Worst value, R^-)로 부터의 거리의 합을 산출하여 각 대안(i)의 유클리디안(Euclidean) 거리를 최고치와 최하치로부터 각각 구한다.

$$S_i^+ = \sqrt{\sum_{i=1}^{m}(R_{ij} - R_j^+)^2} \qquad S_i^- = \sqrt{\sum_{i=1}^{m}(R_{ij} - R_j^-)^2}$$

5.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여 각 대안(i)의 최종 지수(P_i)를 계산한다. 최고치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최하치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최종지수의 값은 높아진다. 최종지수(P_i)의 값이 높을수록 TOPSIS로 산출한 랭킹이 높아진다.

$$P_i = \frac{S_i^-}{S_i^+ + S_i^-}$$

- **경제성과지수(EPI)와 경제복원력지수(ERI) 산출 방법**

○ 먼저, 경제성과지수(EPI)에 포함된 항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투자, 실업률, 정부부채, 경상수지, 물가지수 등 6가지 항목이다. 이 여섯 항목은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경제변수들로서 한 나라의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선정되었으며 각 항목의 가중치는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경제복원력지수(ERI)에 포함된 항목은 거시 경제 기초 변수의 변화율로 구성되어 있다. GDP 변화율, 투자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정부부채 변화율, 경상수지변화율, 인플레이션율 등 6가지 항목이다. 일반적 거시경제지표는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이루는 지표의 기본값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기본값보다 덜 바람직한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면서 잠재성장률과 결부되는 값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동은 위기의 시대에는 회복탄력성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에 경제변수의 변화율을 구함으

로써 경제복원력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경제복원력지수는 이용가능하고 중요한 경제성과지수에 포함된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율을 종합하여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 경제성과지수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을 측정한다면 경제복원력지수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수준을 기점으로 한해동안 그 국가의 경제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상승 혹은 하락) 변화율을 측정한다. 따라서, 경제성과지수가 이미 매우 높아 더이상의 상승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경제복원력 지수 자체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 경제성과지수가 매우 낮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타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년도 경제성과가 하락한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이듬해 약간의 경제 건전성, 안전성, 및 생산성 회복만으로도 그 국가의 복원력 수준은 높게 나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경제전체에 큰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의 변화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경제복원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별 경제성과 및 경제복원력지수 순위

〈표 2〉 국가별 경제성과지수 순위

순위	국가	2017-2019 평균EPS	국가	2020 EPS	국가	2021 EPS
1	싱가포르	0.8495	싱가포르	0.8419	스위스	0.8528
2	네덜란드	0.8451	네덜란드	0.8249	덴마크	0.8458
3	스위스	0.8437	대만	0.8247	싱가포르	0.8420
4	덴마크	0.8376	덴마크	0.8150	네덜란드	0.8401
5	대만	0.8228	아일랜드	0.7927	노르웨이	0.8369
6	노르웨이	0.8227	홍콩	0.7890	대만	0.8363
7	독일	0.8104	스위스	0.7865	아일랜드	0.8344
8	홍콩	0.7998	독일	0.7845	독일	0.8174
9	스웨덴	0.7846	스웨덴	0.7772	홍콩	0.8053
10	한국	0.7782	노르웨이	0.7662	스웨덴	0.8037
11	아제르바이잔	0.7704	이스라엘	0.7614	한국	0.7834
12	태국	0.7678	슬로베니아	0.7583	슬로베니아	0.7804
13	슬로베니아	0.7667	한국	0.7579	이스라엘	0.7799
14	이스라엘	0.7633	리투아니아	0.7525	호주	0.7761
15	오스트리아	0.7559	호주	0.7453	오스트리아	0.7693
16	러시아	0.7506	오스트리아	0.7382	리투아니아	0.7634
17	에스토니아	0.7445	체코	0.7364	핀란드	0.7598
18	아일랜드	0.7407	핀란드	0.7242	러시아	0.7513
19	호주	0.7342	폴란드	0.7201	말레이시아	0.7437
20	체코	0.7336	말레이시아	0.7200	체코	0.7416
21	말레이시아	0.7325	라트비아	0.7184	에스토니아	0.7389
22	불가리아	0.7314	태국	0.7152	중국	0.7364
23	리투아니아	0.7270	중국	0.7114	폴란드	0.7324
24	이란	0.7269	러시아	0.7106	베트남	0.7315
25	핀란드	0.7268	뉴질랜드	0.7093	뉴질랜드	0.7283
26	벨기에	0.7258	이탈리아	0.7048	불가리아	0.7270

순위	국가	2017-2019 평균EPS	국가	2020 EPS	국가	2021 EPS
27	중국	0.7226	멕시코	0.7038	라트비아	0.7268
28	크로아티아	0.7202	베트남	0.7033	멕시코	0.7262
29	베트남	0.7200	니카라과	0.7027	이탈리아	0.7259
30	헝가리	0.7179	우크라이나	0.6992	벨기에	0.7249
31	라트비아	0.7146	필리핀	0.6987	이란	0.7232
32	이탈리아	0.7133	벨기에	0.6979	캐나다	0.7224
33	파라과이	0.7132	에스토니아	0.6979	에콰도르	0.7217
34	미국	0.7127	칠레	0.6971	태국	0.7185
35	프랑스	0.7110	온두라스	0.6971	칠레	0.7182
36	스페인	0.7098	파라과이	0.6968	헝가리	0.7165
37	폴란드	0.7096	불가리아	0.6911	아제르바이잔	0.7160
38	뉴질랜드	0.7083	헝가리	0.6898	파라과이	0.7157
39	우루과이	0.7073	벨라루스	0.6890	카자흐스탄	0.7119
40	캐나다	0.7054	슬로바키아	0.6866	벨라루스	0.7112
41	에콰도르	0.7033	에콰도르	0.6847	슬로바키아	0.7074
42	포르투갈	0.6996	인도네시아	0.6831	프랑스	0.7069
43	도미니카 공화국	0.6979	이란	0.6821	일본	0.7047
44	벨라루스	0.6971	일본	0.6808	니카라과	0.7047
45	멕시코	0.6967	스페인	0.6803	스페인	0.7038
46	카자흐스탄	0.6945	캐나다	0.6796	페루	0.7033
47	슬로바키아	0.6944	미국	0.6790	인도네시아	0.7026
48	니카라과	0.6943	페루	0.6784	미국	0.7009
49	페루	0.6936	프랑스	0.6775	포르투갈	0.6996
50	필리핀	0.6934	아제르바이잔	0.6760	필리핀	0.6990
51	영국	0.6929	포르투갈	0.6694	영국	0.6934
52	일본	0.6928	우루과이	0.6690	도미니카 공화국	0.6926
53	인도네시아	0.6894	도미니카 공화국	0.6681	크로아티아	0.6900
54	칠레	0.6858	파나마	0.6676	우루과이	0.6886
55	터키	0.6842	영국	0.6664	온두라스	0.6870

순위	국가	2017-2019 평균EPS	국가	2020 EPS	국가	2021 EPS
56	루마니아	0.6801	카자흐스탄	0.6643	바레인	0.6825
57	온두라스	0.6797	스리랑카	0.6633	파나마	0.6816
58	바레인	0.6792	엘살바도르	0.6576	스리랑카	0.6815
59	스리랑카	0.6764	모로코	0.6556	터키	0.6811
60	코스타리카	0.6726	볼리비아	0.6546	우크라이나	0.6780
61	엘살바도르	0.6706	크로아티아	0.6535	루마니아	0.6778
62	우크라이나	0.6691	루마니아	0.6501	볼리비아	0.6747
63	볼리비아	0.6669	남아프리카 공화국	0.6487	모로코	0.6700
64	파나마	0.6667	이집트	0.6444	코스타리카	0.6665
65	콜롬비아	0.6643	터키	0.6430	콜롬비아	0.6660
66	모리셔스	0.6620	몽골	0.6429	엘살바도르	0.6622
67	모로코	0.6610	코스타리카	0.6429	이집트	0.6605
68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0.6523	세르비아	0.6423	몰도바	0.6564
69	이집트	0.6487	콜롬비아	0.6411	세르비아	0.6563
70	세르비아	0.646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640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6546
71	몰도바	0.6396	몰도바	0.6336	남아프리카 공화국	0.6471
72	아르메니아	0.6331	아르메니아	0.6181	알제리	0.6412
73	알바니아	0.6303	키르기스스탄	0.6127	키르기스스탄	0.6391
74	남아프리카 공화국	0.6292	바레인	0.6118	알바니아	0.6281
75	키르기스스탄	0.6257	알제리	0.6012	아르메니아	0.6237
76	그리스	0.6236	알바니아	0.6010	몽골	0.6164
77	알제리	0.6174	모리셔스	0.5906	그리스	0.6147
78	몽골	0.5906	서안·가자 지구	0.5897	서안·가자 지구	0.6005
79	서안·가자 지구	0.5814	그리스	0.5881	모리셔스	0.5901
80	브라질	0.2670	브라질	0.2430	브라질	0.2707

〈표 2〉에 나타난 경제성과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평균 경제성과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대만, 노르웨이, 독일, 홍콩, 스웨덴, 그리고 한국 등 북·서유럽과 아시아의 중·선진국들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에는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팬데믹을 겪는 와중에 경제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한 13위로 코로나 이전 보다는 경제성과 순위가 3단계 하락하였지만 전체 80개국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경제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일랜드, 독일, 홍콩, 스웨덴이 우수한 경제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11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21년 예상 경제성과 순위가 높은 국가들의 대부분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과 상위권을 유지했던 국가들이다.

○ 한국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의해 경제성과지수와 순위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2021년에는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성과지수와 순위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경제성과지수 순위 27위, 2020년 23위, 2021년 22위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그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다른 국가들보다 우수한 경제성과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3개년 평균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34위였으나 2020년에는 그 순위가 47위로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은 2021년에도 48위를 기록,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전 세계 8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경제성과지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표 3〉 국가별 경제복원력지수 순위

순위	국가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ERS	국가	2020 ERS	국가	2021 ERS
1	홍콩	0.5451	대만	0.7955	대만	0.8291
2	니카라과	0.5383	중국	0.7771	그리스	0.8271
3	에콰도르	0.5219	그리스	0.7651	중국	0.8250
4	이란	0.4773	스위스	0.7644	알바니아	0.8142
5	터키	0.4632	이스라엘	0.7598	우크라이나	0.8134
6	알제리	0.4407	프랑스	0.7598	프랑스	0.8122
7	스리랑카	0.4395	폴란드	0.7547	덴마크	0.8118
8	핀란드	0.4289	니카라과	0.7543	라트비아	0.8077
9	멕시코	0.4277	한국	0.7537	말레이시아	0.8020
10	코스타리카	0.4217	알바니아	0.7519	한국	0.8017
11	남아프리카 공화국	0.4168	스웨덴	0.7507	크로아티아	0.8013
12	온두라스	0.4126	네덜란드	0.7489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0.8010
13	우루과이	0.4079	일본	0.7461	슬로베니아	0.7974
14	파나마	0.4070	덴마크	0.7423	베트남	0.7952
15	우크라이나	0.4027	호주	0.7406	노르웨이	0.7942
16	싱가포르	0.3987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0.7382	호주	0.7936
17	칠레	0.3915	베트남	0.7370	세르비아	0.7934
18	바레인	0.3902	슬로베니아	0.7355	이탈리아	0.7933
19	볼리비아	0.3834	세르비아	0.7335	스웨덴	0.7883
20	콜롬비아	0.3784	이탈리아	0.7322	포르투갈	0.7881
21	파라과이	0.3779	독일	0.7274	루마니아	0.7860
22	한국	0.3778	오스트리아	0.7219	스위스	0.7858
23	말레이시아	0.3776	바레인	0.7209	이스라엘	0.7846
24	브라질	0.3771	이집트	0.7172	일본	0.7845
25	모리셔스	0.3756	몰도바	0.7137	네덜란드	0.7845

순위	국가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ERS	국가	2020 ERS	국가	2021 ERS
26	노르웨이	0.3737	영국	0.7126	오스트리아	0.7825
27	서안·가자 지구	0.3696	루마니아	0.7105	독일	0.7805
28	뉴질랜드	0.3652	노르웨이	0.7103	벨기에	0.7794
29	호주	0.3614	크로아티아	0.7090	이집트	0.7767
30	스웨덴	0.3586	불가리아	0.7076	헝가리	0.7734
31	페루	0.3547	헝가리	0.7041	몰도바	0.7734
32	도미니카 공화국	0.3499	스페인	0.7034	스페인	0.7729
33	키르기스스탄	0.3481	스리랑카	0.7021	뉴질랜드	0.7721
34	리투아니아	0.3460	홍콩	0.7019	바레인	0.7701
35	캐나다	0.3459	코스타리카	0.7008	러시아	0.7686
36	중국	0.3455	말레이시아	0.7004	캐나다	0.7677
37	이탈리아	0.3448	벨기에	0.6991	터키	0.7632
38	그리스	0.3399	모로코	0.6980	싱가포르	0.7615
39	인도네시아	0.3395	싱가포르	0.6974	카자흐스탄	0.7613
40	모로코	0.3393	뉴질랜드	0.6974	스리랑카	0.7590
41	엘살바도르	0.3384	포르투갈	0.6929	미국	0.7558
42	프랑스	0.3376	인도네시아	0.6918	모로코	0.7546
43	아르메니아	0.3353	아일랜드	0.6847	볼리비아	0.7532
44	러시아	0.3349	벨라루스	0.6822	파라과이	0.7519
45	카자흐스탄	0.3344	아르메니아	0.6807	코스타리카	0.7515
46	영국	0.3322	리투아니아	0.6806	인도네시아	0.7487
47	필리핀	0.3313	카자흐스탄	0.6793	니카라과	0.7456
48	몰도바	0.3276	엘살바도르	0.6756	우루과이	0.7445
49	아제르바이잔	0.3271	미국	0.6741	영국	0.7421
50	덴마크	0.3269	캐나다	0.6730	불가리아	0.7419
51	일본	0.3262	도미니카공화국	0.6700	태국	0.7400
52	스위스	0.3262	핀란드	0.6684	엘살바도르	0.7378
53	미국	0.3238	알제리	0.6678	칠레	0.7358
54	이스라엘	0.3235	태국	0.6672	도미니카공화국	0.7348

순위	국가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 ERS	국가	2020 ERS	국가	2021 ERS
55	독일	0.3231	라트비아	0.6661	서안·가자 지구	0.7340
56	알바니아	0.3224	파라과이	0.6606	온두라스	0.7322
57	대만	0.3221	러시아	0.6596	폴란드	0.7281
58	스페인	0.3193	슬로바키아	0.6587	핀란드	0.7266
59	몽골	0.3152	모리셔스	0.6518	페루	0.7253
60	베트남	0.3125	서안·가자 지구	0.6485	몽골	0.7219
61	벨기에	0.3072	우루과이	0.6469	리투아니아	0.7209
62	포르투갈	0.3071	아제르바이잔	0.6463	알제리	0.7203
63	오스트리아	0.3057	볼리비아	0.6445	멕시코	0.7202
64	루마니아	0.3018	칠레	0.6444	슬로바키아	0.7184
65	태국	0.2999	몽골	0.6381	아르메니아	0.7135
66	슬로바키아	0.2964	브라질	0.6377	벨라루스	0.7123
67	크로아티아	0.2886	콜롬비아	0.6376	체코	0.7060
68	라트비아	0.2859	터키	0.6219	콜롬비아	0.7053
69	에스토니아	0.2854	에스토니아	0.6151	아제르바이잔	0.6991
70	슬로베니아	0.2853	남아프리카 공화국	0.6089	모리셔스	0.6978
71	네덜란드	0.2836	페루	0.6076	브라질	0.6939
72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0.2758	온두라스	0.6069	키르기스스탄	0.6936
73	폴란드	0.2611	키르기스스탄	0.5996	남아프리카 공화국	0.6867
74	이집트	0.2517	우크라이나	0.5920	에스토니아	0.6720
75	불가리아	0.2453	멕시코	0.5744	파나마	0.6683
76	세르비아	0.2441	필리핀	0.5566	필리핀	0.6552
77	체코	0.2417	체코	0.5479	아일랜드	0.6174
78	벨라루스	0.2416	에콰도르	0.5430	홍콩	0.6170
79	헝가리	0.2236	파나마	0.5389	이란	0.5917
80	아일랜드	0.1991	이란	0.4954	에콰도르	0.4883

한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과가 아닌) 자신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한해동안 얼마나 높은 수준의 반등을 보였는지를 측정하는 경제복원력 순위(〈표 3〉)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이전 2016-2017, 2017-2018, 2018-2019 총 3개년 경제복원력 평균의 순위를 보면 홍콩, 니카라과, 에콰도르, 이란, 터키, 알제리, 스리랑카, 핀란드, 멕시코가 상위권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대만, 중국, 그리스, 스위스, 이스라엘, 프랑스, 폴란드, 니카라과,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3년 대비 경제복원력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에 2020년에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경제가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들 국가들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의 경제복원력 예측순위는 대만, 그리스, 중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덴마크,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1년의 경제 회복·복원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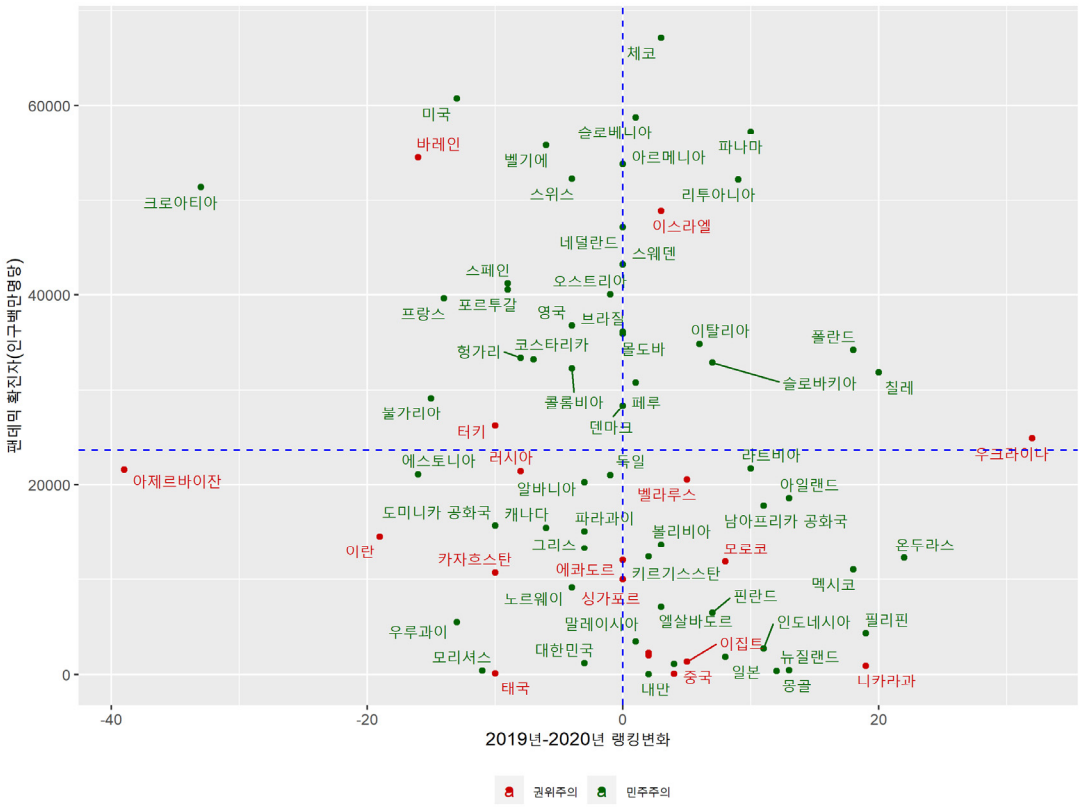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경제복원력 순위가 22위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0년의 경제복원력은 9위, 2021년의 경제복원력 10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수준의 경제복원력을 보였다. 이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였음을 의미한다.[8)]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경제복원력 순위가 36위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0년의 경제복원력 순위는 2위, 2021년의 경제복원력 순위는 3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원력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53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0년 경제복원력 49위, 2021년 4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제성과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제취약성이 중국보다 미국이 높았음을, 그리고 그 피해로부터의 회복·복원력 또한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8) 한국은 경제성과지수와 경제복원력 순위가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과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매우 우수한 편을 유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경제복원력 수준도 매우 높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국가별 경제성과 순위 비교

〈그림 1〉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9]와 2019*–2020년 경제성과지수 순위변화[10]



*** 2017–2019년 평균값을 사용**

〈그림1〉은 코로나19의 심각성과 국가별 경제성과지수 순위변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순위는 〈표2〉에 나온 2017–2019년 평균 경제성과지수의 순위와 2020년 경제성과지수 순위를 비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구백만명당 확진자 수가 국제 평균 보다 낮은 국가들(파란색 수평선 아래 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2019년 보다 2020년의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뉴질랜드, 몽골,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멕시코, 아일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9)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로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수의 감소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확진자 수를 통해 국가별 코로나19 심각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1년 5월 24일까지 측정하였으며 데이터의 출처는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이다.

10) 푸른색 점선은 인구백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평균값(수평선)과 경제성과지수 순위변화 0(수직선)을 나타냄.

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이상인 국가들 (파란색 수평선 윗부분) 가운데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하락한 국가들이 많았다. 벨기에,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많은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심각성과 경제성과지수의 반비례 관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칠레와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지수순위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비교적 적었음에도 경제성과지수 랭킹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치체제와 경제성과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위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를 나타낸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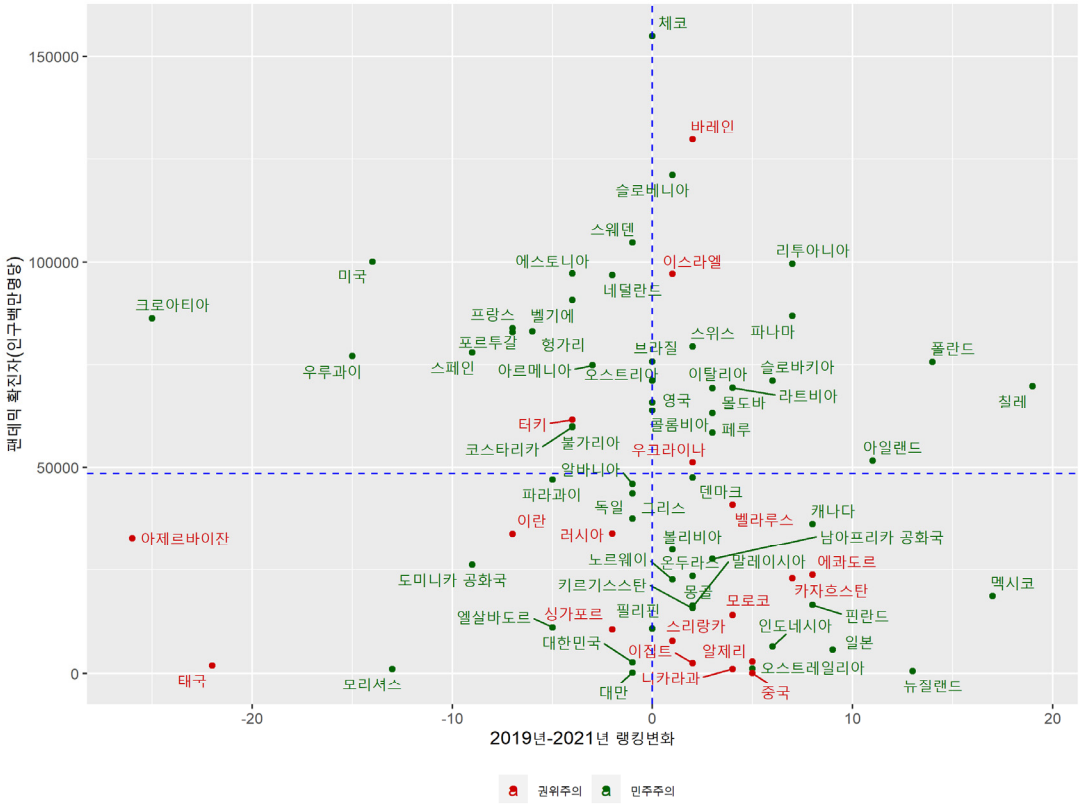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이집트는 2020년 동안 백만명 당 만 명이하의 확진자를 기록했으며, 모로코, 이란, 카자흐스탄,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잘 통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성공적인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뚜렷한 경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권위주의 국가인 태국은 코로나 확진자는 적었지만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같이 아시아에서 비교적 민주적이라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태국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2019년보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2019년에 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와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19 통제에 실패했으며 경제성과지수 순위 또한 하락하였다.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해 확진자가 세계평균 이하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진하였다.

11) 민주주의, 권위주의 정권구분은 POLITY IV Project(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의 Polity 2지표를 따랐다. Polity 2 값이 7 이상인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 나머지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림 2〉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2019-2021년 경제성과지수 순위변화



〈그림 2〉 는 코로나19의 타격을 입기 전과 이로부터의 회복을 시작한 2021년 사이 각 국가의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큰 타격을 입었던 국가들인 불가리아, 콜롬비아,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2021년에는 순위를 점차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과지수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확진자가 많았던 미국,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은 그만큼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적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순위가 하락한 태국, 싱가포르, 터키, 러시아 등, 그리고 많은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순위가 오히려 상승한 칠레, 폴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경제성과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즉, 확진자 수로 측정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부진을 야기한다고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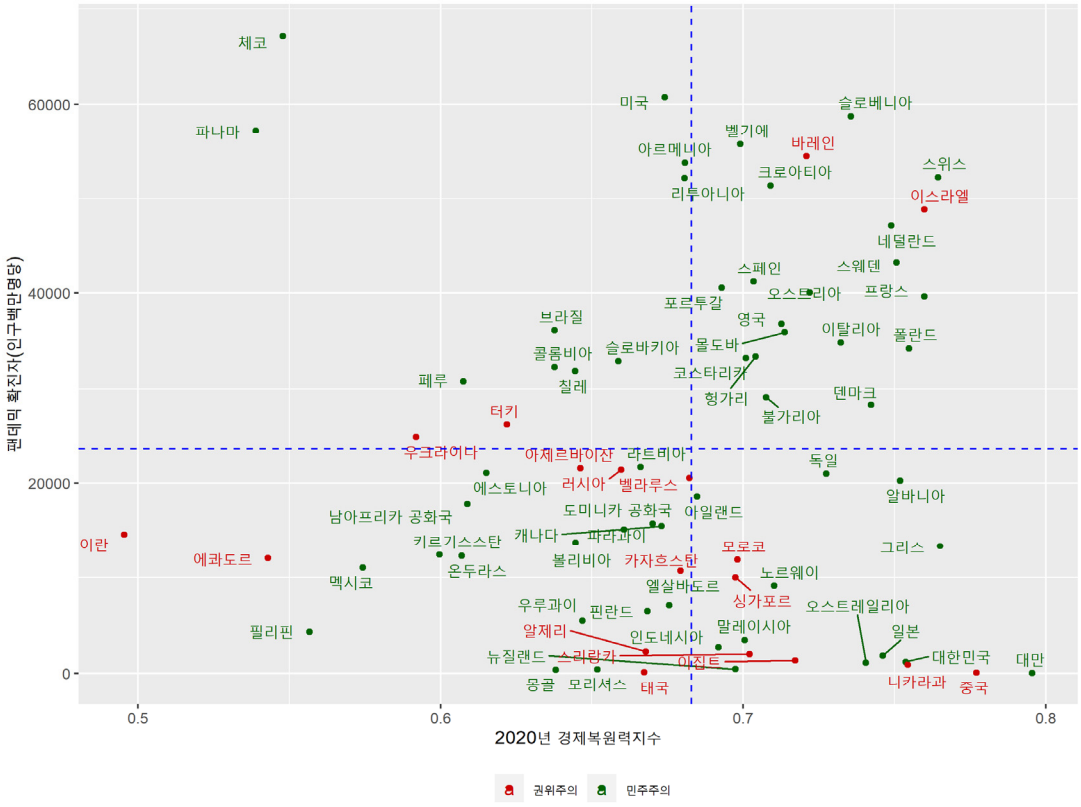
한국은 2020년에는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1년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21년까지도 국제평균이상의 인구백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한 국가들의 많은 수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 가운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포함된다.

○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은 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여전히 2021년까지도 코로나19 통제에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경제성과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은 2021년까지도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고 경제적 부진을 보인 국가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도 존재한다. 반대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국가들 가운데에도 경제성과가 개선된 국가와 악화된 국가가 모두 존재한다.

〈그림 3〉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0년 경제복원력지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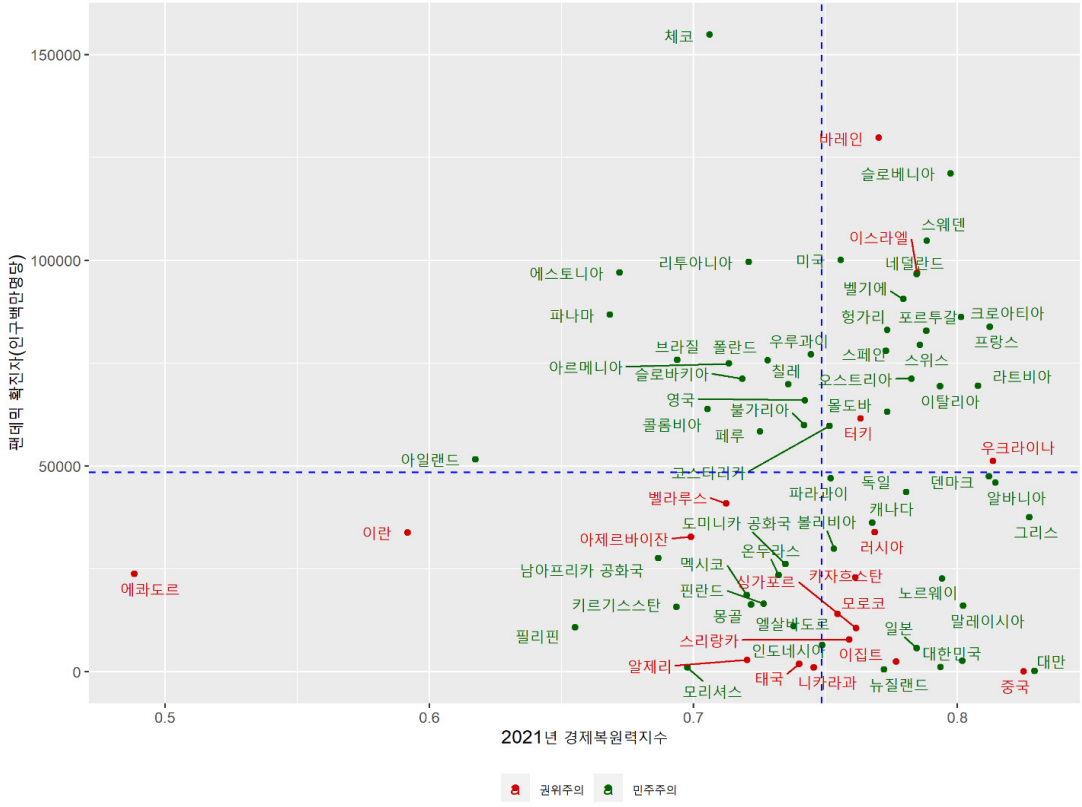
〈그림 3〉 은 각국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확산 이전 3년 평균 대비) 2020년 경제복원력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각국의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12) 푸른색 점선은 인구백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평균값(수평선)과 상하위50% 구분 기준(수직선)을 나타냄.

경제복원력지수도 2020년에 (경제성과지수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1) 우수한 복원력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적게 유지하거나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니카라과, 그리스, 호주, 노르웨이 등), 2) 우수한 복원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제평균이상을 기록하거나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영국 등 주로 유럽국가들), 3) 낮은 수준의 복원력을 보였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제평균이하로 통제에 성공한 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몽골, 필리핀, 멕시코, 캐나다, 핀란드 등)에 해당하였다.

○ 터키, 파나마, 체코,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와 같이 경제복원력 수준이 낮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많았던 국가들도 있었으나 (순위에 있는 80개국 가운데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림 4〉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1년 경제복원력지수



〈그림 4〉 는 각국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코로나19 확산 이전 3년 평균 대비) 2021년 경제복원력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각국의 정치체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021년 각국의 경제복원력 지수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높은 경제복원력과 낮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하였다.

○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등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1년 경제복원력지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영국, 불가리아, 폴란드 등은 경제복원력지수 순위가 하락하였다.

○ 한편, 에스토니아는 2020년에 경제복원지수 수준은 낮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제평균이하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경제복원지수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확진자 수는 국제평균 이상으로 급등하며 확진자 수 통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경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제복원지수 수준은 낮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제평균이상인,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경제복원력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 앞서 설명하였듯이 코로나19 확지자 수 국제평균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1) 우수한 경제복원력 수준과 높은 확진자 수, 2) 낮은 경제복원력 수준과 높은 확진자 수, 3) 우수한 경제복원력 수준과 낮은 확진자수, 4) 낮은 경제복원력 수준과 낮은 확진자 수 등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 권위주의 국가들 또한 낮은 경제복원력 수준과 높은 확진자 수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5. 결론

본 보고서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들은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전 세계 약 80개국의 경제성과지수(EPI)와 경제복원력(ERI) 및 그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오로지 경제지표만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시기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수 추세, 정부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 등을 주로 이용한) 다른 기관들이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수 및 순위와는 차별성이 있다.

경제성과지수(EPI)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을 측정한다. 경제성과지수는 코로나19 위기가 국가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사건 전후 국가의 경제성과지수와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국가가 위기를 순조롭게 이겨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경우 〈표 2〉에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소득 국가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복원력지수(ERI)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수준을 기점으로 한해동안 그 국가의 경제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즉, 그 국가의 역량 수준에서 봤을 때 전년대비 얼마나 국가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이 회복, 상승하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성과 수준 보다는 오로지 상승(혹은 하락)율에 수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표 3〉에 나타나듯이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 혹은 저소득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복원력지수는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거대한 외부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연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외부적인 위협에 의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충격을 받은 경우 어떤 국가가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국가가 충분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성과지수가 이미 매우 높아 더이상의 상승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경제복원력 지수 자체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기존 경제성과지수가 매우 낮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타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년도 경제성과가 하락한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이듬해 약간의 경제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 회복 만으로도 그 국가의 복원력 수준은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 우선, 기존 강대국들의 경제복원력 변화는 향후 세계질서를 전망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강대국이지만 경제복원력이 낮은 경우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부터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그 강대국보다 경제복원력

이 높은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경제를 빠르게 복원·회복하여 강대국들 간 힘의 우위 측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과 및 복원력 지수를 통해 국가 간의 힘의 균형 변화와 세계질서 재편 가능성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오늘날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를 지원할 때, 혹은 국제기구가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단순히 소득수준 향상 외에도 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그 국가의 전반적인 복원력인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즉, 단순히 국가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국가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위기대응 및 복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복원력 향상을 위한 해외원조가 필요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정확히 어느 수준의 경제복원력 향상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경제복원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만한 지수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정밀한 경제복원력지수가 개발된다면 경제적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는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회복탄력성이 낮은 국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냄으로써 그 국가의 경제회복탄력성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국제사회가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그동안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의 필요성에 집중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2031년부터는 유엔이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잇는 지속가능 및 회복탄력적 발전 목표(Sustainable and Resilient Development Goal: RSDGs)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회복탄력성까지 포괄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늘날 회복탄력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은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 및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계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각국의 경제복원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